

# 기축옥사 새로운 사실·해석 제시

전주대 오항녕 교수, '사실을 만난 기억-조선시대 기축옥사의 이해' 출간

전주대학교 대학원 오항녕 교수(사학과)가 '사실을 만난 기억-조선시대 기축옥사의 이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오항녕 교수

이 책은 기축옥사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연구를 다각도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589년(선조 22)에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시작된 기축옥사는 3년 동안 이어진 옥사로 최영경, 이발 등 억울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고, 수사책임자였던 정철, 유성룡, 이양원 등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전라도, 특히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이 연루되면서 호남 사립에 대한 탄압이라는 인식도 덧붙여졌다.



사실을 만난 기억-조선시대 기축옥사의 이해

역사적 사실이란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

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결과로, 구조, 의지, 우연의 세 요소로 구성돼 있다"라고 정의하고, 이 개념에 따라 기축옥사의 전개와 결과를 분석했다. 이 책은 국왕을 가르치는 홍문관 관원이던 정여립이 일으킨 옥사가 주는 당혹감과 두려움, 그가 교류한 인물의 다양성, 추국청의 운영과 구성이 끼친 영향, 형법에서 반역 사건이 가지는 위상 등을 차분히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기축옥사는 후대의 기억과는 달리, 서인과 동인의 당쟁도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발생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항녕 교수는 "기축옥사에 대한 오해와 오독의 원인은 우선 관련 자료의 부실이지만, 후일 형성된 오해와 편견도 적지 않게 뒤섞여 있다"며 "많은 사료를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데는 놔두는 다문권(多問權)의 접근을 통해 역사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는 지난 1일, 남원예촌by켄싱턴에서 시민도예대학 개관 25주년 기념행사와 도예대학 제47기 수강생 5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 남원 시민도예대학 개관 25주년 기념행사

### 제47기 수강생 52명 수료식도 진행

남원시는 지난 1일, 남원예촌by켄싱턴에서 시민도예대학 개관 25주년 기념행사와 도예대학 제47기 수강생 5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경덕진 도자대학교의 도자문화고등연구원 상무부원장 엔페이 교수와 도자예술디자인학과 자오신 교수를 초청해, 시민도예대학 수강생, 시민, 도예 전문가를 모시고 중국 도자기를 소개하는 특별강연과 작품 기증 등이 진행되었다. 엔페이 교수가 기증한 작품 공자는 중국에서 "황금은 값이 있어도 공자는 값이 없다"는 말

이 있으며, 국가 정상들에게 외교의 징표로 선물한다고 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세계 도자기의 도시이자, 도자문화 산업의 발원지인 중국 경덕진의 도자대학교 교수의 남원시 방문에 매우 감사드리며, 더불어 매우 귀한 작품을 기증받게 되어 기쁘다. 또한 특별강연과 기증행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활발한 도예문화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도예대학은 하반기에도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063-620-568)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신구·박근형 주연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

신구, 박근형의 열연으로 매진의 신화를 세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익산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과 13일 오후 2시에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선보인다. 한국 현대 연극사에 명작으로 길이 남을 이번 연극은 오경택 연출에 국내 최고의 배우인 신구와 박근형이 최고령 '에스트라공(고도)'과 '블라디미르(디디)'를 연기한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2막의 부조리극이다. 에스트라공(고도)과 블라디미르(디디)라는 두 방랑자가 실체 없는 인물 '고도(Godot)'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88세, 84세 관록의 신구, 박근형 두 배우가 선보이는 '고도를 기다리며'는 한국 연극의 역사이자, 연극사의 신화가 되고 있다. 신구, 박근형 배우와 함께 '포조' 역에 김화철, '럭키' 역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밀도 높은 연기를 선보여온 조달환 배우가 출연한다. '소년' 역에는 다수의 뮤지컬 무대 경험을 쌓아온 이시목 배우가 합류해 기운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 티켓은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B석 1만 원으로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주한벽문화관, '수수콘' 하반기 공연

### 10월까지 다채롭게 진행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2024 공연 활성 무대지원사업 일환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수요일 저녁 7시 한벽공연장에서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 퓨전음악, 대중음악, 다원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수수콘(수요일 수당은 콘서트)이라는 이름으로 상반기에는 6개 단체(5장르) 공연이 진행됐으며, 하반기 6개 단체는 클래식, 퓨전 국악, 다원예술을 준비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오는 17일에는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아무제 오보에 앙상블 정기 연주회-삶의노래'를 통해 9대의 오보에로 푸시킨의 작품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8월 7일 전 북음악예술종합교육원이 선보일 '한여름 밤의 콘서트'에서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클래식 곡을 피아노로 연주한다. 피아노 전공 예술인의 무대를 시작으로 차세대 예술인의 무대가 이어진다. 이후 8월 21일 쉐이선브라스는 1·2기 멤버의 조화를 이룬 연주를 준비했다. 창단 10주년 기념 클래식 공연 '제9회 정기연주회-Old & New'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9월 11일 국은예트(etre)는 '이속도록' 밤이 깊을 때까지에서 신곡 (ETRE)를 발표한다. 전통악기와 재즈, 소리꾼 구성의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다. 또한 10월 2일 21세기 현대

공연명	6월	7월	8월	9월	10월
6월 13일	9(4) 19:00	3(4) 19:00	7(4) 19:00	11(4) 19:00	2(4) 19:00
6월 20일	12(4) 19:00	4(4) 19:00	10(4) 19:00	14(4) 19:00	3(4) 19:00
6월 27일	15(4) 19:00	7(4) 19:00	13(4) 19:00	17(4) 19:00	5(4) 19:00
7월 4일	18(4) 19:00	10(4) 19:00	16(4) 19:00	20(4) 19:00	8(4) 19:00
7월 11일	21(4) 19:00	13(4) 19:00	19(4) 19:00	23(4) 19:00	11(4) 19:00
7월 18일	24(4) 19:00	16(4) 19:00	22(4) 19:00	26(4) 19:00	14(4) 19:00
7월 25일	27(4) 19:00	19(4) 19:00	25(4) 19:00	29(4) 19:00	17(4) 19:00
8월 1일	30(4) 19:00	22(4) 19:00	28(4) 19:00	32(4) 19:00	20(4) 19:00
8월 8일	33(4) 19:00	25(4) 19:00	31(4) 19:00	35(4) 19:00	23(4) 19:00
8월 15일	36(4) 19:00	28(4) 19:00	34(4) 19:00	38(4) 19:00	26(4) 19:00
8월 22일	39(4) 19:00	31(4) 19:00	37(4) 19:00	41(4) 19:00	29(4) 19:00
8월 29일	42(4) 19:00	34(4) 19:00	40(4) 19:00	44(4) 19:00	32(4) 19:00
9월 5일	45(4) 19:00	37(4) 19:00	43(4) 19:00	47(4) 19:00	35(4) 19:00
9월 12일	48(4) 19:00	40(4) 19:00	46(4) 19:00	50(4) 19:00	38(4) 19:00
9월 19일	51(4) 19:00	43(4) 19:00	49(4) 19:00	53(4) 19:00	41(4) 19:00
9월 26일	54(4) 19:00	46(4) 19:00	52(4) 19:00	56(4) 19:00	44(4) 19:00
10월 3일	57(4) 19:00	49(4) 19:00	55(4) 19:00	59(4) 19:00	47(4) 19:00
10월 10일	60(4) 19:00	52(4) 19:00	58(4) 19:00	62(4) 19:00	50(4) 19:00
10월 17일	63(4) 19:00	55(4) 19:00	61(4) 19:00	65(4) 19:00	53(4) 19:00
10월 24일	66(4) 19:00	58(4) 19:00	64(4) 19:00	68(4) 19:00	56(4) 19:00
10월 31일	69(4) 19:00	61(4) 19:00	67(4) 19:00	71(4) 19:00	59(4) 19:00

음악 앙상블은 '가브리엘 포레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포레와 제자 리베의 곡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연주한다. 10월 30일 수수콘의 마지막 공연 '일드러머 이명창'에서는 재즈 드러머 홍지형과 소리꾼, 악기 솔로 조합으로 재즈음악을 결합한 퓨전국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철민 관장은 "수준높은 공연과 다양한 장르를 준비한 만큼 수수콘이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미술관, '이건용과 현대미술작가 12인전' 개막

국립군산대학교가 등록미술관 승인을 기념하는 첫 기획전으로 마련한 '이건용과 현대미술작가 12인전'이 지난 3일 개막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작가,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전시회는 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이건용 교수가 닦은 현대미술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 지역 및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 동문 12인의 작품 27점이 전시되고 있다. 작품들은 회화, 사진,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용 교수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1999년부터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해 현재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2020년 세계 최대 아트 플랫폼인 아트시(Artsy) 선정 '지금 주목해야 할 예



술가 35인'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는 올해 4월 전북지역 대학미술관 최초로 등록미술관 승인을 획득했고, 승인 이후 등록미술관으로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객남시절을 갖추고 학예연구실도 마련하는 등 반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는 지역사회 고급문화예술 풍토를 두텁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 오직 시민의 편에서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익산시의회

검색하면 더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IKSAN

CITY COUNCIL